건설 60년, 역사와 전통의 '대림산업'

지난 1939년 창업한 대림산업은 60여년간 우리 민족의 경제발달사와 그 맥을 같이 해 왔다. 대림산업은 건국 초 공공건물, 수리시설 등 국가 재건사업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을 건설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의 건설기술을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고도의 기술집약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세계 유수의 종합건설회사로 성장하였다.
이번호 회원사 탐방에서는 '대림의 역사는 우리나라 건설의 역사'라 할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림산업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박병기 기자〉

국내 최초의 고급주상복합아파트 대림아크로빌

'부림상회'에서 21세기 세계적 건설기업으로

1939년 부평역 앞에 대림산업의 전신인 '부림상회'가 문을 열었다. 단순한 건설자재 취급점포에서 점차 원시림 개발과 원목생산, 제재업까지 확장하면서 종합목재 사업체로 발전, '부림상회'는 불과 6년여만에 손꼽히는 민족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1947년 회사명을 '대림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이때부터 종합건설회사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게 되었다. 1966년 대림산업은 건설도급액 순위 1위를 달성하고, 한국 최초로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 우리의 건설공사를 진출시키기도 했다.

이 시기 대림산업은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복개공사,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 및 비료공장, 발전소, 항만건설 등 한국 경제발전사의 획을 긋는 중요 공사에 참여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건설 진출에 앞장선 대림은 1971년에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74년에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76년에 남아공 등에 지점을 설치하여 해외건설 공사 수주의 교두보를 넓혀 나갔다.

이 시기 대림엔지니어링을 설립해 EC화에 대비하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대규모 해외공사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국내에서는 국회의사당, 남산어린이회관, 포항제철소 등 전국의 대표적인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대림은 1977년 이후에 세계적인 신용을 인정받는 건설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오만, 도쿄, 뉴욕, 바레인, 런던, 이집트, 쿠웨이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지까지 지점망을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대림은 1979년 호남에틸렌을 인수하여 석유화학사업에 진출하였으며, 81년에는 기아기연을 인수, 대림공업과 합병하여 대림자동차공업을 출범시키는 등 중화학분야와 기계공업분야로 진출해 기업 다변화를 꾀했다. 이 경험은 이후 대림산업의 플랜트 건설에 남다른 노하우를 제공해 주었다.

창업 50주년을 맞는 1989년에 대림산업은 제2창업을 선언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며, 광대무한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한숲정신'을 회사의 기업이념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전략인 '대림 21세기'를 선포하고 21세기에 EC화된 세계적인 건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도약의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해 온 대림은 1999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를 선도해 온 대림엔지니어링을 합병, 명실공히 최강의 EC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제 대림은 핵심역량을 총집결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천년기업의 꿈을 실현할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의 웅비할 준비를 마무리지어 가고 있다.

기업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기준으로 경영전략의 수립이나 조직, 제도, 설계의 지침이 되는 것이 경영원칙이다. 대림은 기업이념이 그러하듯 경영원칙 역시 한숲정신에서 우러나고 있다.

한편 시대적 여건변화와 의식변화 등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기업경영에도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구시대의 경영방식이나 관행은 용납되지 않으며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사고와 개혁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IMF 체제 이후 과거의 비효율적인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구습을 척결하는 개혁의 새바람이 불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림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

8월 용인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은 옥적률 90%대의 전원형 APT
용인보정 대림아파트 ☞ 편현세상

에 최고 경영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여 전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행동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공개경영'이다.

대림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개경영'이란 첫째,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비능률적인 업무절차와 형식에 얽매인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상하간의 자유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통하여 적기의 의사결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정신자세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기보다 인적, 물적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구시대적 정신을 타파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용자원을 집중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도의 경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상식과 원칙에 준하는 기업활동으로 '정도의 경영'을 추구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비생산적 대립을 지양, 번영과 공존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대림은 이러한 공개경영의 원칙하에 IMF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속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채비율을 타 건설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160%대로 낮춰 우량기업으로서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대림아파트 e -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 몰린 인파

살아본 사람이 다시 찾는 집 대림아파트 e -편한세상

건설 60년을 자랑하는 대림산업, 대림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전국에 걸쳐 '살아본 사람이 다시 찾는 집'을 지어 왔다. 대림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낯설던 60년부터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여 주상복합건물의 효시가 된 종로의 대림상가아파트, 남산 외인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시공하였다.

이후 대림이 건설한 아파트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의 대방, 신내, 신도림 등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민간업체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인 화명동, 해운대아파트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전국 아파트 최우수 모범시공현장으로 선정되었던 대전 법동아파트 등 전국적으로 1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급실적을 쌓아 왔다.

또한 업계 최초로 고급아파트인 '아크로빌'을 선보였던 대림산업은 미래형 초고층 주거공간을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림산업이 올해초 일반아파트의 새 브랜드로 정한 'e-편한세상'은 분양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림은 'e-편한세상'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림이 새 브랜드로 내놓은 'e-편한세상'의 'e'는 인터넷(사이버)를 상징하며 '편한세상'은 인터넷 서비스로 생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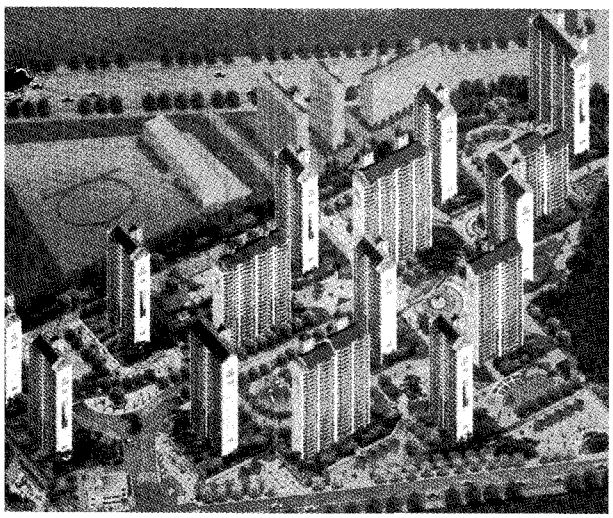
더욱 편리해지는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생활과 문화와 교육이 편해지고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네트워크로 연결, 사이버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림은 'e-편한세상'을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붙일 계획인데 여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한편 'e-편한세상'에 인터넷 시대를 앞서가는 주부를 일컫는 신조어인 '넷시(Netssy)'를 등장시켜 가정정보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넷시'는 인터넷(Internet)과 미시(Missy)의 합성조어이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은 용인 보정에서 최고 31대 1, 부천 상동에서 최고 27대 1, 제주 연동에서 최고 4대 1의 청약율을 보였으며, 오포 신현의 조합원 모집에서는 3일만에 완료 되었다.

여기에 지난 4월 서울시 동시분양에서 선보인 성산동의 경우 최고 14대 1, 용강동의 경우 6대 1의 청약율을 보였으며, 한국타이어 부지 신도림 대림아파트는 최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5차 사울 동시분양에서 최고 41:1의 경쟁율을 기록한 신도림 대림아파트 *e* - 편한세상

[illegible]

그동안 대림은 우리 민족사와 그 맥을 같이 해오면서 자본과 기술이 빈약했던 건국 초기부터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과 비료,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건설에 참여하여 이 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다.

여기에 6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 대규모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세계 곳곳에 근면 성실한 한국인상을 심어가면서 국위를 선양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림인들은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 못지 않게 근면의 땀과 성실한 노력으로 당당한 경영의 정도를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는데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는 경쟁력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라고 한다. 대림산업과 대림엔지니어링을 하나의 회사로 합병함으로써 이제 대림산업은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능력 등 핵심역량의 결집을 통한 EC 통합체제를 구축하였다.

대림의 EC 시스템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최종 목표로 타당성 조사에서 기획, 설계, 시공, 자금조달,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이로써 대림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축적해 온 업계 최고 수준의 설계 및 기자재 조달능력, 뛰어난 시공능력, 풍부한 공사실적, 마케팅 및 정보력을 바탕으로 첨예한 수주경쟁과 치열한 품질경쟁이 예상되는 새천년을 앞선 EC 시스템으로 열어간다는 계획이다.